불자 세상보기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강렬
경기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매년 가을학기쯤 되면 배우가 되고 싶다는 자녀의 등살에 못 이겨 전공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난다. 언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선호 직업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연예인이라고 한다. 아마도 일찍부터 인기를 얻고 돈도 벌어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외화내빈(外華內貧)이라는 말이 있듯 무대의 연기자가 자칫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남모르는 고뇌와 아픔을 삭여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젊은 열정에 쫓겨 깊은 생각 없이 선택한 일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본다.

아무리 의욕과 욕망이 용솟음친다 해도 능력과 기회의 성숙을 위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라 하여 '재능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이다. 보석같은 경구와 훈고를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공자는 한 마디 말이라도 세 번쯤 생각한 후에 하라했고, 맹자는 너무 빨리 출세하면 뒤끝이 좋지 않다고 타일렀다. 이것 역시 '도광양회'와 어울리는 말로 매사를 심사숙고해 천천히 행하라는 조언이다.

그런데 요즘은 남보다 빨리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꿈꾸는 풍조다보니 너도나도 조급증에 빠져든다. 굳이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는 고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가듯 한 단계식 성취해 나가는 데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경구(警句)다. 매일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는 물론 자신이 계획해 실천에 옮겨야 하는 일상사에 이르기까지 서둘러서 득(得)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 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누구나 젊은 시절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20대는 오히려 불행하고 50대가 넘어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20대부터 서서히 행복지수가 떨어져 30~40대에는 최저를 기록하다가 인생의 중반점인 50대부터 다시 상승하는 'U자형'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더욱이 관심을 끄는 것은 40대까지 꾸준히 행복지수가 낮아지다가 45세쯤이 가장 불행한 나이라는 영국 워릭대의 연구보고다. 아마도 이즈음 은퇴나 사회관계에서 오는 불안감이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중년이 될수록 가정과 사회에 대한 중압감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실직하거나 부모 등 가까운 사람들을 잃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50대부터 상승하는 행복감은 65세가 되면 정점을 기록하고, 평균 25세 때 느끼는 행복도보다 높다고 한다.

아마도 65세 정도의 노인은 자신의 조건에서 나름의 만족을 느끼는 방법을 체득하기 때문이 아닐까. 자녀부양도 끝내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정신적인 여유가 행복감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보인다. 아마도 가능한 많은 친구들과 교우하며, 주변의 부나 명예와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지혜로움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눈앞의 이해득실(利害得失)만을 따져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딱하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지간임에도 사소한 오해와 갈등으로 절교의 담을 쌓기도 한다.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간도 하찮은 자존심으로 다투다가 이혼도 서슴지 않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사람들은 남을 위해 봉사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어떤 무엇보다 크다고 한다. 이타(利他)의 마음을 열고 한번쯤 주변을 뒤돌아보자.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이외로 많다. 그리고 순리에 따라 물 흐르듯 살아가면, 사회와의 일체감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이던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분명 자아실현의 지름길이 열릴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성운 스님
삼천사 주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인연의 시작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인간의 몸을 받을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생은 차치하고 지금 현생을 되짚어보면 내가 태어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 쉽게 말해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열 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끊임없는 교감을 나눈 후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성장하면서 친구, 스승, 연인, 직장동료 등 수많은 만남을 통해 각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

만남, 참 정감 있는 말이다. 물론 '만남' 앞에 '나쁜' 혹은 '좋지 않은'의 형용사가 붙으면 당연히 좋을 수 없겠지만 설령 좋지 않은 만남, 또는 나쁜 만남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훈련할 수 있으니 말이다.

만남을 우리 불가에서는 인연이라고 한다. 인연(因緣)이란 불교에서 인(因)과 연(緣)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인(因)은 결과를 산출하는 원인이 되는 씨앗과 같은 것이며, 연(緣)은 결과의 산출을 도와주는 환경과 조건으로 외·간접적 원인이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면 씨앗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인이다. 그 씨앗이 적당한 환경과 조건(물, 흙, 햇볕, 공기, 온도 등)을 만나 잘 성장하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연이다.

그러면 왜 인연이 소중한 것일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처럼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이치가 인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좋은 답이 될 만한 설법제일 푼나의 이야기가 있다.

사리풋타, 목갈라나, 마하캇사파, 아누룻다, 수부티, 캇차나, 우파리, 라후라, 아난다 그리고 푼나, 이른바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다. 사리풋타는 지혜, 목갈라나는 신통, 마하캇사파는 두타, 아누룻다는 천안, 수부티는 해공(解空), 캇차나는 논의, 우파리는 지계, 라후라는 밀행(密行), 아난다는 다문, 그리고 푼나는 설법에 있어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대 제자들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무역 상인들의 교역이 매우 활발했다. 그 상인들 가운데 유명한 대상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푼나'였다. 인도 서해안에 위치한 수나파란타국의 항구 도시 숫파라카 출신이었던 푼나는 대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푼나는 아버지가 죽자 형제들 간 싸움에 밀려 한 푼의 재산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다. 쫓겨난 푼나는 우연히 얻은 향나무를 밑천으로 장사해서 큰 자산을 이루게 되었고, 이후 대상인이 된 것이다. 그의 명성은 저 멀리 코살라국의 사왓티에까지 퍼졌고, 사왓티의 상인들과 함께 그의 생애 7번째 항해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사왓티의 상인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읊조리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눈여겨보던 푼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함께 노래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그럼,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매일 함께 읊조리시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 귀의한 자들로 그 분의 가르침을 함께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느낀 푼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석가족으로부터 출가하신 분입니다. 사문 고타마라 불리지요.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분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 분은…."

상인들에게 들은 부처님의 이야기에 푼나는 왠지 모를 감동의 전율을 느꼈다.

"그 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코살라국의 사왓티시 근교에 있는 제타숲에서 수닷타장자가 세운 정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렇게 푼나는 부처님과의 만남을 그리며 긴 항해를 마치고 사왓티를 향해 길을 나섰다. 먼저 수닷타 장자를 만나 함께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향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푼나는 그 즉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고, 부처님의 십대 제자가 되었다.

참으로 희유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인연은 한 사람의 운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연은 무엇일까. 또 그들이 느끼는 소중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 인연은 걸어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네트워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하는 노파심이 생긴다.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세상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 인연만큼은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인연,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이다.

社說

조계사가 보여준 문화결사의 표본

조계사와 수덕사가 내포가야산 성역화와 보원사지 복원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조계사는 이번 수덕사와의 파트너십을 5대결사 중 하나인 '문화결사'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추진을 결정했다.

예산 수덕사는 2004년부터 보원사와 민족 성지를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내포가야산은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과 통일신라시대 화엄십찰 중 한 곳이었던 보원사 터가 있는 곳이다.

조계사·수덕사는 내포가야산 성역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을 증명으로 조계사 토진 스님, 수덕사 지운 스님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준비위원회를 꾸린다고 한다.

추진위는 대중이 함께 민족문화수호 의지를 다지는 '백제의 미소길 걷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계사와 수덕사의 공동사업은 획기적이라 불릴만 하다. 지금까지 조계종에서는 계파·문중간 합종연횡은 있었어도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사찰과 사찰간 연대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5대결사 관련 사업은 교구본사별 각개 사업뿐이었다. 그마저도 체계적·지속적이지 못해 비판받기 일쑤였다. 교구를 초월해 사찰과 사찰이 손잡은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

조계사와 수덕사의 맞잡은 손이 더없이 아름다운 이유다.

두 사찰의 원력과 신심이 꽃피울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의 아름다운 회향을 기다린다.

교구본사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불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불교가 고령화되고 있다. 어제 오늘 듣던 소리가 아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명제가 또 한 번 사실로 드러났다. 각 지역별 포교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태는 더 심각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집은 많은데 절이 없었다. 대전은 시청 앞에서 열렸던 봉축행사가 지역 내 공원에서 축소돼 열렸을 만큼 위기였다. 불교활동을 위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었다. 강원 불교는 템플스테이로 흥하고 있었지만 관광 특수(?)에 따른 역풍이 우려됐다. 교세가 가장 약한 호남 불교는 이웃종교와의 3배 격차를 신심과 원력만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민속신앙의 그늘에 갇힌 제주불교, 소외돼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섬 불교 등 안타깝지 않은 곳이 없었다. 불자의 대다수가 분포한 영남 불교는 기복에 치중한 개인 신행 일색일 뿐 인적자원의 역량에 한없이 못 미치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다.

지역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강한 원력과 굳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 안타까움이 더했다. 인적 자원 각자의 수준은 높은데 네트워크 결성 등 조직력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계종의 교구본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강점기에 정해진 교구본사제는 현재의 행정구역과는 괴리가 크다. 가톨릭은 수시로 인구 분포에 따라 교구를 수시로 조정한다고 한다. '항상하는 것은 없다'는 무상(無常)의 도리를 말하는 불교계가 가톨릭의 유연성을 눈여겨 봐야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